

일 주 문



보원사지 여름영화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8월 2-3일 보원사지와 내포문화마을에서 여름영화캠프를 개최했다.



한·일 청소년국제교류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은 8월 2-6일 '제 8회 한·일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큐슈 일대를 다녀왔다.



영불자원봉사교육 수강생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하는 '제7기 영불자원봉사자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23-5101



무료 법률상담 진행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02)466-3900



김포시종합복지관, 김포교육지원청 협약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장 관장 지관 스님은 7월 18일 김포교육청과 청소년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우 8월 열린 법석
조성택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8월 3일 '행복을 지키는 마니 힐링'을 주제로 선우 8월 열린 법석을 개최했다.

“부자 함께 사회자립 가능하게 할 터”

(父子)

불교계 최초 부자(父子) 보호시설 위탁 운영하는 효운 정사



“우리나라는 현재 이혼 등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중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 양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자가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현재 진각종 모자운영 시설인 '달빛동지'를 지켜 보며 부자가정 시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시설 위탁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공한 부자보호시설 운영은 급변하는 시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7월 22일 시설 건립 기공식

내년 6월 20세대 입주

지상 5층에 상담실, 휴게실 갖춰 보호 3년내, 총 2년 연장 가능

진각부자보호시설 기공불사를 7월 22일 봉행한 진각종 밀각심인당 주교 효운 정사는 부자보호시설 건립운영은 아버지와 가족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 사회에 더욱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최초의 부자보호시설인 이 곳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한 밀각심인당내에 지상 5층 건물(지하 2층)로 지어지며, 20세대의 부자가정이 내년 6월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부자가정이 입주하게 되면 방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욕실 1개 등이 갖춰진 17평 정도의 공간서 생활하게 된다.

부자보호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거실과 사무실, 상담실, 도서관, 휴게실 등을 갖추게 된다. 시설에 종사하는 직인도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조리사, 사무직원 등 6명 정도가 상주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보호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하자는 것이 사업 목적인 만큼 자녀 교육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효운 정사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비율이 약 22%에 이른다”면서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또 그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자보호시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보호기간이 3년내인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년내인 공동생활지원형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본생활지원형은 보호기간이 3년내이며, 1년 미만 기간을 단위로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세대주인 아버지가 알코올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입소를 철저히 제한 시킬 것입니다. 약 2600세대의 서울시 부자가정 중 보호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20세대를 선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기간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효운 정사는 지난 1998년 밀각심인당내 개원한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 겨울철 소외된 이웃 김장봉사, 쌀 자비나눔 행사 등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국염불만일회 16차 염불정진대회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제1차년도 염불정진대회 겸 염불만일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성식은 27년 5개월의 염불결사 입재로 2013년은 16차년도다. 올해는 '법차계, 신나계,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개최했다.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입재식에서 “건봉사의 등공대는 최초의 염불만일결사가 탄생하여 31명이 육신등공한 곳”이라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가 건봉사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5470일을 맞이하며 염불보살의 후예임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명법 스님 대안연구공동체서 강연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민 불교 강좌

대안연구공동체의 파이데이아 대학원(학장 이정우)에 불교철학 강좌가 개설된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한 대안연구공동체는 첫 강연으로 조계종 교수이사리 명법 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유마경> 강좌를 개최한다. 15주간 계속되는 이번 강좌는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불교 경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77-0616 노덕현 기자

신사종합복지관, 가족성장 협약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이 늘봄가족성장연구소(대표 노소현)와 협약식을 진행하고 지역 내 가족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사복지관은 '늘봄가족성장연구소'와 지난 7월 31일 협약을 체결하고, 본 복지관 2층에 위치한 치료센터의 장소를 제공하여 가족성장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늘봄가족성장연구소의 개소 준비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마을지향복지관 만들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보련 스님은 “늘봄가족성장연구소의 가족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늘봄가족성장연구소는 가족을 중심으로 심리검사, 치료, 상담, 다중지능검사, 진로탐색,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인환 스님 '자랑스런 한국인 상' 수상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경국사 한주인인환 스님(사진)이 한국일보가 최근 주관한 '2013년 대한민국 자랑스런 한국인 그라운드' 포교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일보는 인환 스님 선정 이유를 “성찰과 참 수행자의 모습으로 국민의 존경과 감동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불교의 등불을 밝히고 민족의 스승으로 역사에 길이 새길 업적을 남기셨으므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환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맡아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및 한국불교기록 유산 집대성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자신의 사재 1억 원을 한국불교학진흥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이영면 △경영관리실장 김인재 △국제처장 황경태 △국제처 국제학사지원센터장 원종희

종정협의회, 논산훈련소 위문

7월 28일, 단주 5000개, 발전기금 전달



(사)대한불교 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 승가총종정)는 7월 28일 육군 훈련소 호국 연구사에서 위문 법회를 개최했다.

훈련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문법회에는 종정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종정스님이 증병으로 동참했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들”이라며 “여러 종정스님들을 친견한 공덕으

로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법가에 이어 입정이 진행됐으며 인왕 스님(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동산 스님(대선불교 조계종 초대종정), 해봉 스님(대한불교 해동종 종정)이 각각 법문했다. 이어 종정협의회는 장병들에게 단주와 다과 5000명 분을 선물했으며 발전기금 300만원과 주지 현조 스님에게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이치노헤 스님 일본 참회비 제막

11월 26일 부산서... '신민화' 정책 참회

일본 조동종(曹洞宗) 운상사(雲祥寺·아오모리 현 소재) 이치노헤 쇼코 주지 스님(사진)과 신도 10여 명이 7월 26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서중학교 담벼락에 세워진 비석 제막식을 가졌다.

비석에는 일제 침략에 앞서 조선에 포교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일본 불교가 황국신민화 교육에 앞장선 것을 참회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일본불교 조동종이 '심전(心田) 개발운동' 같은 황국신민화 공작에 적극 가담해 당시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고 말하고 사죄 독경을 했다.

1907년 건립된 일본 조동종 부산 포교소 총진사(總泉寺)가



있던 곳이 지금의 서중학교 자리다. 당시 총진사는 9원2500㎡ 땅에 지어졌고, 서울에 세워진 일본 조동종 조계사·박문사에 이어 일제강점기 유력 사찰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동종 사원은 북한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487개에 달했고 부산에는 19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각성 큰스님 “원각경보안보살장(圓覺經普眼菩薩章)” 고운사 특강

수행자여!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원각경 <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멀하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나리라. 이 보안보살은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무 인연공덕으로 선근을 심으시길 발원하면서...



-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일만원정 (₩100,000)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 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인원제한이 없어 특강을 신청하시는 모든 스님들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www.gosusa.net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포럼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포럼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